



즉시 배포용: 2022년 4월 11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1,500만 달러의 뉴욕주 생체방어 상용화 기금 조성 계획 발표

이 프로그램은 전염병 관련 솔루션을 찾기 위한 초기 단계의 기업과 최종 단계의 학술 연구로 상용화를 가속화하여 뉴욕주의 생명과학 경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1차 추천 지원대상 [여기](#)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4,000만 달러 뉴욕주 생체방어 상용화 기금의 1차 지원대상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변이를 포함한 심각한 전염병의 위협을 해결하는 생명공학 혁신의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기는 한편 확대되고 있는 뉴욕주의 생명과학 산업 전반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성장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의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총 15,292,418 달러로 18개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가장 먼저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었습니다. 바이러스 퇴치에 진전을 이루고 더 강한 재건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도 우리는 미래 준비를 확실히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들은 뉴욕주의 전도유명한 생명과학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현재와 미래의 전염병 위협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향후 더 안전하고 강한 뉴욕주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할 것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 부커미셔너이자 최고경영자 임명권자인 Hope Knigh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생명과학 계획(State's Life Science Initiative)을 통해 코로나19와 다른 전염병에 주력하고 있는 혁신적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뉴욕주가 경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고 생명과학의 생태계를 확대함과 아울러 전 세계의 보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뉴욕주 보건 커미셔너인 Dr. Mary T. Bassett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생체방어 상용화 기금(New York State Biodefense Commercialization Fund)은 뉴욕주의 감염병 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생명과학 부문을 성장시킬 혁신적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와 새로운 변이를 포함한 감염병 퇴치를 위한 연구 및 민간 부문의 활동에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의 공공 보건 기구들을 강화시키고 미래 대비를 더 잘할 수 있는 길입니다."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Partnership for New York City)의 사장 겸 CEO인 Kathryn Wyld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의 생명과학 산업은 글로벌 혁신 경제에 있어서 우리의 리더십에 더욱 더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상용화에 대한 공공 투자는 민간 기금과 그로 인해 창출되는 경제 활동에 의해 수십 배 더 커질 것입니다."

중대한 감염병 위협을 예방, 치료 또는 완화하기 위해 유망한 진단도구, 백신, 치료제 및 기타 혁신을 개발하고 있는 신생 기업들이 최대 400만 달러의 보조금 신청 대상이었습니다. 뉴욕의 학술기관들도 생명과학 부문의 지적 재산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 50만 달러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기금이 상용화 노력을 가속화시키는 노력을 돕는 데 있어서 재정적 지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금 수혜자들이 기술을 활용하여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창업과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상용화에 심층적 전문지식을 갖춘 40여 명의 멘토를 기금에서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맞춤형 지도는 혁신 개발과 기업 성장을 위한 성공가도를 촉진하는 데 값진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신청의 결과로, 8개 신생 기업과 10개 학술 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들은 중대한 감염병 확산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진단도구, 치료제 및 기타 혁신을 포함한 감염병 솔루션을 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177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그 중 104건이 신생 기업이고 73건이 학술 기관의 신청이었습니다.

지원 대상 프로젝트는 지리적 위치와 중점분야 측면에서 다양합니다. 8개 신생기업들은 총 11,115,659달러의 지원을 받아 기업과 일자리 창출 및 유지에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추가의 자금을 풀려는 뉴욕주의 경제 개발 활동에 크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은 기존의 보조금과 총 6,140만 달러의 투자 기금을 활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체방어 상용화 기금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뉴욕주를 떠나지 않고 남아 보조금이 고갈된 후 최소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속해야 합니다.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뉴욕주 생명과학 프로그램

뉴욕주는 뉴욕의 세계적 수준의 생명과학 연구 클러스터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연구를 상업화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주정부의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6억 2,000만 달러 규모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의 다차원적 이니셔티브에는 뉴욕주에 새로운 생명공학 기술을 도입하고, 첨단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공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촉진하며, 뉴욕주에서 생명공학 관련 사업과 고용을 창출하고 확대하는 전략적 프로그램을 위한 3억 2000만 달러의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 분야에는 바이오기술, 의약품, 바이오메디칼 기술, 라이프 시스템 기술 분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업무의 대부분을 다양한 단계의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및 상업화에 투입하는 조직과 기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의 회사들은 매일 새로운 치료법이나 암과 신경계 질병과 같은 질병의 조기 검진을 통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의료 및 제약 관련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은 농업 및 환경

바이오기술 분야에서도 현저한 진보를 이루고 있으며, 보다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시설에 투자하며, 인재와 전문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뉴욕은 산업계가 자금을 지원한 연구 및 개발에 대한 뉴욕의 지분율을 현저히 증대시키고, 기존의 학문적 연구의 상업화를 지원하며, 차세대의 고급 기술이 도입되게 할 것입니다. 과학의 발전을 넘어서, 이 계획으로 제조업 기반의 신흥 기업들을 유치하고 지역 경제를 강화하며, 수천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지역으로 뉴욕을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Empire State Development) 소개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뉴욕의 주요 경제 개발 기관입니다. 뉴욕주 개발공사의 목적은 경제 활성화와 성장, 새로운 일자리 및 경제 기회 창출,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세수 증가 및 지역사회 경제의 안정화 및 다변화입니다. ESD는 대출, 보조금, 세금 공제 및 기타 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도모와 뉴욕주에 위치한 사회의 번영을 위한 사유 기업 투자 및 성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는 또한 뉴욕주의 지역경제개발협의체(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Councils)와 뉴욕을 상징하는 관광 브랜드 “아이 러브 뉴욕(I LOVE NY)”을 감독하는 주요 행정기관입니다. 지역 협의회 및 엠파이어 스테이트 개발공사(ESD)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regionalcouncils.ny.gov 및 www.esd.ny.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